순천시, 개방정원 연계한 하반기 '열린정원 여행' 성료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개방정원으로 등록된 개인정원 8곳을 연계한 '2022 순천시 하반기 열린정원 여행'이 87팀 106명의 시민과 여행객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열린정원 여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기간 중 금·토·일 3일간 하루 1회씩 총 6회, 야간투어와 주간투어로 나눠 운영됐다.

야간투어는 가을에 단풍이 곱게 물드는 매곡동 홍매가헌과 고즈넉한 한옥이 돋보이는 낙안면 이씨고택정원에서 무알콜 수제맥주를 마시며 저녁 정원에 물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간투어는 철도역사와 함께한 조곡동 #672관사정원을 시작으로 4대가 가꾸어온 매곡동 매산등 100년정원, 작지만 소박한 옥천동 옥천뜰에서 정원주로부터 정원의 이야기를 들었다.

또 정원주가 만든 토우가 잘 어울리는 도사동 음악정원, 태어나고 자란 친정집에 다시 돌아와 가꾼 낙안면 숙희의 뜰, 소나무와 바위 그리고 차경이 아름다운 낙안면 석정원을 돌며 개성이 다른 정원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연인, 가족, 친구와 함께 정원주들이 어떤 계기로 정원을 꾸몄는지, 정원을 공개하게 된 경위 등을 공유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여행객들에게 정원이 단순히 구경만 하는 곳이 아닌 머무르며 쉼과 여유를 찾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라며 "내년에 열리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시의 관광인프라를 위해 보다 나은 정원여행 소재를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열린정원 여행'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운영했다. 상반기는 테마별 정원 투어로, 하반기는 일상에서 벗어나 쉼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정원에 머무는 여행을 진행했다.

/이유빈 기자

광양 드론 산업·메이커 페스티벌 성료

헬리콥터 퍼포먼스·드론 군집 공연 등 진행

광양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상상력을 아이디어로 실현하는 '2022년 광양 드론 산업 & 메이커 페스티벌'에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최근 광양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된 페스티벌은 헬리콥터 퍼포먼스, 드론 군집 공연, FPV 레이싱 드론 시연, 산업용 드론 시연과 드론 전시, 경진대회를 비롯해 체험행사와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드론 전시장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날다, 천풍무인항공 등 6곳이 참여했으며,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는 인명 구조, ㈜날다에서는 관제, 천풍무인항공에서는 방제하는 모습을 드론으로 시연했다.

또한 드론 장애물 레이싱 경진대회에서는 학생부 26명, 성인부 18명이 접수해 예선과 본선을 거쳐 학생부 6명, 성인부 3명이 수상했다.

페스티벌에 참여한 시민들은 드론 낚시, 드론 축구, 드론 농구를 비롯한 다양한 드론 체험과 3D 펜 창작, 코딩로봇체험, VR 등의 메이커 체험, 두 가지 페스티벌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부스마다 체험을 위한 대기가 줄을 이었다.

페스티벌에 참여한 한 시민은 "아이와 함께 방문했는데 평소에 접하기 힘든 드론을 직접 날려보고 로봇을 원하는 대로 코딩하는 경험이 신기하면서 새로웠다"고 전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창의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광양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지역이자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구례, 농업인의 날 행사 성료

구례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 위원회는 최근 서시천 체육공원 야외무대에서 지역 농업인들의 그간 노고를 위로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구례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구례군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14개의 농업인 단체가 참여했고, 관내 농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0여 명이 함께 참석해 행사를 더욱 빛나게 했다고 밝혔다.

1부 기념식에서는 손성진(마산면)이 최고의 영예인 '우수농업인대상'을 수상했으며, 이 밖에도 7명의 유공자들이 농업인 권익 향상과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또한 4-H본부에서 우수한 학생 4-H 회원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2부 화합 한마당에서는 읍면 노래자랑과 단체 줄넘기, 투호 던지기, 팔씨름 등 명랑 체육경기가 진행돼 지역 농업인들이 모처럼 함께 어우러져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다질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읍·면 우수 농산물 품평회를 개최해 구례군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및 시상을 통해 농업인들의 사기를 높였다.

김용덕 구례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장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홍경석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사)탄소중립실천연대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제공

여수, 탄소중립·COP33 유치 위한 MOU 체결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사)탄소중립실천연대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전남도 이범우 기후생태과장, 서금열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사)탄소중립실천연대 김영주 공동대표와 각 기관별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각 기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기후환경 인재양성 ▲기관·단체간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보 교류와 홍보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기명 시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동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협약으로 민·관·학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해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곡성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 최우수

곡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군-Ⅳ유형 '종합 최우수 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9천만 원을 포상으로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21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토대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곡성군을 포함해 42곳이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재정 분석은 지방재정 현황과 성과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자치단체를 인구 규모, 고령 인구 비율, 재정력 지수, 세출규모 등 여건이 유사한 13개 군(群)으로 유형화해 평가를 진행한다. 한 유형당 대략 20개의 지자체가 포함된다.

재정 분석 항목은 크게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으로 나뉜다. 주요 지표 체계로 채무 비율, 지방 보조금 비율 등 13개의 주요 지표와 예산집행률, 순세계잉여금 비율 등 11개의 분석 지표, 행정운영경비비율, 주민참여예산 지출 비율 등 15개의 참고지표가 활용된다.

곡성군은 특히 효율성 분야에서 지방보조금 증감률,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자체경비 비율 등이 종합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전라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략적 재원 배분과 국비 확보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심선섭 기자